

2016. 1차 등록금 심의위원 회의록

일 시	2016. 1. 11(월) 11:03 ~ 11:50
장 소	학생처장실 (본부 1층)
참석자	위원장 : 변재경 위 원 : 박한순, 전찬주, 이상태, 이진희, 김태영, 송지호, 윤대기
불참자	김창섭
<p>『주요내용』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장 : 바쁘시고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참석해주신 교수 위원, 학부모위원, 학생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. 김창섭 위원은 불참입니다.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진혁 팀장께서 회의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정진혁 : 회의자료 설명 ○ 위원장 : 긴 시간동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. 학부등록금과 대학원등록금 두 사안으로 나누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○ 박한순 : 학부등록금 인상 시에 국가장학금 II유형 41억 전액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? ○ 전찬주 : 네,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○ 김태영 : 간호학과의 추가징수금액이 학부등록금 금액에 포함이 안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 ○ 정진혁 : 추가징수금액은 회계 통합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. 등록금으로는 포함시키지 않겠으며 자체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. ○ 전찬주 :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학부등록금 인상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. ○ 위원장 : 인하는 어렵고 동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. 재무과장님 어떻습니까? ○ 이상태 : 자료에 있듯이 인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○ 전찬주 : 사립대학은 국가장학금 II유형을 포기하는 대학이 있습니다. ○ 박한순 : 회의 자료에 있는 12억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? ○ 정진혁 : 몇 년간 운영비 등을 줄여 대학재정은 심각한 실정입니다. 그렇다고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. ○ 위원장 : 저도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○ 김태영 :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인하는 가능한가요? ○ 정진혁 : 등록금을 동결해도 국가장학금 II유형 받는 것은 문제없습니다. 하지만 인하는 어렵습니다. 	

- 이진희 : 등록금 인하규정은 없는 건가요?
- 정진혁 : 없습니다.
- 이상태 : 2016년부터 정원이 줄어 사실상 등록금을 인하한 것과 같습니다.
- 정진혁 : 예산편성을 해봤을 때 등록금 5%가 인상되어야 합니다. 그러나 등록금 5% 인상 전제조건이 불가인상률 8%가 인상되어야 합니다. 따라서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
- 위원장 :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16학년도 학부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참석의원 전체 : 이의 없습니다.
- 김태영 : 자료 마지막 페이지 대학원 의견수렴 내용은 누구의 의견인가요?
- 정진혁 : 대학원장님 및 행정실 의견입니다. 확정되면 의견수렴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.
- 김태영 : 대학원생의 의견 수렴이 빠졌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
- 정진혁 : 대학원생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 총학생회에서 대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.
- 송지호 : 의견 수렴 후에 인상안 변경이 가능한가요?
- 정진혁 : 다시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
- 김태영 : 등록금 인상 사유가 학생들의 복지부분인가요? 아니면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인가요?
- 전찬주 : 대학원 인증 평가와 신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대학원 장학금 등 2017학년도 대학원인증을 대비해야 합니다. 통계적으로 타 대학 대학원생 등록금보다 우리대학 대학원생 등록금이 적은 수준이기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.
- 김태영 : 대학원생 의견 수렴이 제외된 것 등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.
- 전찬주 : 우리대학은 다른 대학보다 대학원 등록금이 적은 수준입니다.
- 위원장 : 대학원 평가에서 우리 대학이 강원대보다 낮아질 확률이 큼니다. 등록금 인상분 전액은 대학원생을 위해 사용되기에 국가 가이드라인 1.7%이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. 학부모대표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?
- 이진희 : 대학원생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도가 있습니까?
- 정진혁 : 없습니다. 하지만 대학원생만을 위해 쓰겠습니다.
- 박한순 : 타 대학 대학원 등록금 현황이 궁금합니다.
- 김태영 : 학자금 대출 통계에서 대학원생의 대출이 많은 것으로 보아 대학원생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

- 전찬주 : 우리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95%가 학부생입니다. 전일제 대학원생이 적어 RA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부생은 소득분위 9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을 받는 실정이라 상대적으로 대학원생 대출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박한순 : 직장을 다니는 학생들도 정책적 장학금의 지원이 필요합니다.
- 위원장 : 타 대학 대학원등록금 현황 등 자료를 보완해서 대학원 등록금 관련 회의를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다음 회의는 1월 13일 수요일 오후 4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회의는 학부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고, 대학원 등록금은 수요일 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

결		제			
팀 장	이 승희	학생과장	이진호	등록금 심의 위원장	卞在京

학 생 대 표					
총학생회장 김 태 영	김태영	총대의원장 송 지 호	송지호	공과대 학생회장 윤 대 기	윤대기